고향은 태어난 곳 아닌 마음 두고온 곳

淨化特輯

예전에는 고향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산등의 윤곽만이라도 회상의 끝에선 아물거렸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희미하게 꼬리를 감춰 향수가 기대일것조차 무너지는 느낌이다.

머지않아 맞붙어 버릴 듯 뵈는 철길도, 막상 기차로 달려보면 붙지 않고 일정간격을 유지한다. 지나쳐 보면 또 아득히 맞붙은 듯 보인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도 이와 비슷하거나 별로 다르지는 않으리라 여겨진다. 가본댔자 아무것도 고향일 수 없다는 잠작을 충분히 하면서도 그래도 내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폰 소박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40년이면 고향도 고향이기를 거부할 세월이다. 하지만 망향에서만은 이 세월을 어린 산수의 뻘셈처럼 40—40=0으로 생각하려 든다.

그 과로 나타나게 되는 생각지 않고, 설사 그것이 실망의 끝이라 해도, 바보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끝내 망향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미련에서 미욱스런 사람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끈끈하게 젖어드는 미욱스러운 정(情). 이 정으로 하여 얼굴만 보아도 마을을 짚을 수 있고 표정만 보고서도 같은 실향민인것을 가려낼 수 있게된다.

이 실망의 끝이라 해도 바보스럽지 않은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망향을 포기하지 않는 미련에서 미욱스러운 사람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끈끈하게 젖어드는 미욱스러운 정(情). 이 정으로 하여 얼굴만 보아도 마을을 짚을 수 있고 표정만 보고서도 같은 실향민인것을 가려낼 수 있게된다.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된 향수는, 그리워하는 고향에 제각기 다르건만 나의 고향인 듯 여기는 것이다.

우리들의 고향이 어느새 자식들의 고향과 달라졌기에, 망향의 앙금은 짙어졌고 또 향수는 외곬으로 몰리게 되었다.

귀밑머리가 희어진다 에서부터 뼈발도 열마 납지 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가슴에 담겨 출렁여온 그리움, 언제나 메아리로 되어 되돌아올 산이라도 만날 것인지.

체중이 가벼워지는 나이에서 오히려 앓음새가 불편하고 진득하게 한자리에 앉아 배기지를 못하면서 나이를 꾸로 먹고 있다.

길이 있어도 우리들의 길이 아니라 낯새나 잘못의 길이라면, 몸은 없고 다만 마음만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붙어있지 못했다. 다만 조금씩 길이 길다워지려는 기대의 기복(起伏) 만이춤 추고 있음을 바라본다. 하지만 만나지 않고 굽어간 철길의 끝.

가슴에 담겨 출렁여온 그리움, 언제나 메아리로 되어 되돌아올 산이라도 만날 것인지.

체중이 가벼워지는 나이에서 오히려 앓음새가 불편하고 진득하게 한자리에 앉아 배기지를 못하면서 나이를 꾸로 먹고 있다.

길이 있어도 우리들의 길이 아니라 낯새나 잘못의 길이라면, 몸은 없고 다만 마음만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붙어있지 못했다. 다만 조금씩 길이 길다워지려는 기대의 기복(起伏) 만이춤 추고 있음을 바라본다. 하지만 만나지 않고 굽어간 철길의 끝.

예전에는 고향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산등의 윤곽만이라도 회상의 끝에선 아물거렸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희미하게 꼬리를 감춰 향수가 기대일것조차 무너지는 느낌이다.

평범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인정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들의 고향이 점점 아득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더 몸부림치게 한다.

예전에는 고향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산등의 윤곽만이라도 회상의 끝에선 아물거렸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희미하게 꼬리를 감춰 향수가 기대일 것조차 무너지는 느낌이다.

이곳이나 그곳이나 같은 노란 호박까지도 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팬스런 걱정으로, 때로는 고향으로 가는 마음을 접게 된다.

사진의 색깔이 바래듯 그렇게 기억 속의 얼굴까지 빛바랜 것으로 찌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나이 탓이려니하면서도) 실향민들이 두려워하는 한가지 슬픔이다. 아무래도 고향은 잃어봐야 안다.

떠나면 산천은 더이상 고향으로 머물러주지 않고 타향이 된다 고향은 단지 떠난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 간직될 뿐이다.

언제 돌아가 보아도 확인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대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우리들의 간절한 욕심일 뿐, 고향은 이에 순종하지 않는다.

떠나기 전 코에 묻었던 고향 냄새, 갈은 눈에 그려지는 조각풍경, 추억속에 선명한 골목과 동네 그리고 이웃……. 거기서 또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에게서, 그 나마 정을 되찾을 수 있어야 그리움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심지어 오랜 문화유산마저도 예대로 아늑한 분위기에 잠겨 있지 않다면, 아무 것도 가슴에 담을 것을 못 찾게 되고 만다.

이때의 그 허전함을 뉘 알리.

그래서 귀향을 주저하고 차라리 향수만으로 망향을 즐기는 어쭙잖음도 없지 않다.

고향이, 떠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그처럼 오래 직행했던 망향이 스러져 버리고 바람결까지 쓸쓸해지는 것을.

간절한 그리움은 이렇게 때때로 배반당한다. 「고향에 돌아와도 고향은 아니더라」이 그리던 노래도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이 무늬져 있는 들판과 동무들과 나눈 얘기가 흩어진 논두렁길. 나성했던 사람들의 그림자 지워진 다리목, 굴렁쇠를 굴렸던 신작로와 고개돌린 미류나무들….

표정이 없는 숲. 나무나 고발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실망이라는 낱말을 재빨리 떠올려 거부당한 가슴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 아니랴.

와닿는 침묵, 침묵에도 빛과 소리는 있다.

어린 시절이 무늬져 있는 들판과, 동물들과 나눈 얘기가 흩어진 논두렁길, 다정했던 사람들의 그림자 지워진 다리목, 굴렁쇠를 굴렸던 신작로와 고개돌린 미류나무들.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 회부연 청색의 산줄기.

이런 모든 것들의 침묵만에서 갑자기 외로워질 것을 두려워한다. 그 때사 이 외로움을 왜 그다지도 그리워했던가 하고 스스로 한마디 타이르는 말을 찾게 된다면……. 그래서, 그리움은 산처럼 가슴 쓰린 애틋함이 아니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일은 아픔인 이상 가장 착한 마음을 지니게 한다. 세상모르고 지냈던 철없던 일, 신이 났던 일, 아렴던 일, 흐뭇했던일 일 심지어는 고까왔던 일까지도, 여러 색이 합치면 한가지 색이 되듯이 모두 엮혀 즐거운 추억거리가 된다.

잡히지 않고 맴도는 이 즐거움에서,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체념 퀴처럼, 고향 언저리를 맴도는 다람쥐 마음이 된다.

전기가 나갔을 때 가발전을 찾듯이 바쁘고 어렵운 삶의 고비를 넘기면, 스며드는 향생각으로 생활의 틈바구니를 메운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려고 회억에 발동을 건다.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환상의 영상으로, 가능한 모든 회억의 조각을 붙잡아 연결시킨다. 슬픈 일은 일찍접어놓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슬로비디오처럼 늘돌린다. 이런 망향에서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것이 위안이다.

열심히 일하는 꿀벌에게는 습관할 틈이없다고 한다. 이 말이어떤 뜻으로 쓰이든간에 고향을 못가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생각하면 늘 푸른 솔잎의 적송들이 몸을 일으켜 마중하고 그 사이를 흐르는 여울물이 합창을 한다. 그러나 그뿐, 표정이 반가운 눈동자들이 빠진 채여서, 언제나 겉돌다 올 뿐이다.

고향을 생각하면 늘 푸른 솔잎의 적송들이 몸을 일으켜 마중하고 그 사이를 흐르는 여울물이 합창을 한다. 그러나 그뿐 표정이 반가운 눈동자들이 빠진 채여서 언제나 겉돌다 올 뿐이다.

하지만 열마 납지않은 어린카락을 빗겨올릴 때엔, 우리는 일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겨대고 싶어진다.

생겼으리라. 그래서 불려진 것이 아닌가.

노래만이 가슴을 채워줄 귀향이라면……. 이런 경험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다.

부푼 가슴에 가득담아 보리라던 바람 냄새, 대신에, 이미 봇선 타향땅의 바람이며 달라진 것만을 숨쉬게될 때, 거부하는 고향은우리들의 피부를 추위타듯 움츠리게 할 것이다.

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때로는 고향으로 가는 마음을 접게 된다.

사진의 색깔이 바래듯 그렇게 기억 속의 얼굴까지 빛바랜 것으로 찌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나이 탓이려니하면서도) 실향민들이 두려워하는 한가지 슬픔이다. 아무래도 고향은 잃어봐야 안다.

떠나면 산천은 더이상 고향으로 머물러주지 않고 타향이 된다 고향은 단지 떠난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 간직될 뿐이다.

언제 돌아가 보아도 확인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대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우리들의 간절한 욕심일 뿐, 고향은 이에 순종하지 않는다.

떠나기 전 코에 묻었던 고향 냄새, 갈은 눈에 그려지는 조각풍경, 추억속에 선명한 골목과 동네 그리고 이웃……. 거기서 또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에게서, 그 나마 정을 되찾을 수 있어야 그리움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심지어 오랜 문화유산마저도 예대로 아늑한 분위기에 잠겨 있지 않다면, 아무 것도 가슴에 담을 것을 못 찾게 되고 만다.

이때의 그 허전함을 뉘 알리.

그래서 귀향을 주저하고 차라리 향수만으로 망향을 즐기는 어쭙잖음도 없지 않다.

고향이, 떠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그처럼 오래 직행했던 망향이 스러져 버리고 바람결까지 쓸쓸해지는 것을.

간절한 그리움은 이렇게 때때로 배반당한다. 「고향에 돌아와도 고향은 아니더라」이 그리던 노래도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이 무늬져 있는 들판과 동무들과 나눈 얘기가 흩어진 논두렁길. 나성했던 사람들의 그림자 지워진 다리목, 굴렁쇠를 굴렸던 신작로와 고개돌린 미류나무들….

표정이 없는 숲. 나무나 고발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실망이라는 낱말을 재빨리 떠올려 거부당한 가슴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 아니랴.

와닿는 침묵, 침묵에도 빛과 소리는 있다.

어린 시절이 무늬져 있는 들판과, 동물들과 나눈 얘기가 흩어진 논두렁길, 다정했던 사람들의 그림자 지워진 다리목, 굴렁쇠를 굴렸던 신작로와 고개돌린 미류나무들.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 회부연 청색의 산줄기.

이런 모든 것들의 침묵만에서 갑자기 외로워질 것을 두려워한다. 그 때사 이 외로움을 왜 그다지도 그리워했던가 하고 스스로 한마디 타이르는 말을 찾게 된다면……. 그래서, 그리움은 산처럼 가슴 쓰린 애틋함이 아니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일은 아픔인 이상 가장 착한 마음을 지니게 한다. 세상모르고 지냈던 철없던 일, 신이 났던 일, 아렴던 일, 흐뭇했던일 일 심지어는 고까왔던 일까지도, 여러 색이 합치면 한가지 색이 되듯이 모두 엮혀 즐거운 추억거리가 된다.

잡히지 않고 맴도는 이 즐거움에서,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체념 퀴처럼, 고향 언저리를 맴도는 다람쥐 마음이 된다.

전기가 나갔을 때 가발전을 찾듯이 바쁘고 어렵운 삶의 고비를 넘기면, 스며드는 향생각으로 생활의 틈바구니를 메운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려고 회억에 발동을 건다.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환상의 영상으로, 가능한 모든 회억의 조각을 붙잡아 연결시킨다. 슬픈 일은 일찍접어놓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슬로비디오처럼 늘돌린다. 이런 망향에서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것이 위안이다.

열심히 일하는 꿀벌에게는 습관할 틈이없다고 한다. 이 말이어떤 뜻으로 쓰이든간에 고향을 못가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생각하면 늘 푸른 솔잎의 적송들이 몸을 일으켜 마중하고 그 사이를 흐르는 여울물이 합창을 한다. 그러나 그뿐 표정이 반가운 눈동자들이 빠진 채여서 언제나 겉돌다 올 뿐이다.

하지만 열마 납지않은 어린카락을 빗겨올릴 때엔, 우리는 일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겨대고 싶어진다.

생겼으리라. 그래서 불려진 것이 아닌가.

노래만이 가슴을 채워줄 귀향이라면……. 이런 경험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다.

부푼 가슴에 가득담아 보리라던 바람 냄새, 대신에, 이미 봇선 타향땅의 바람이며 달라진 것만을 숨쉬게될 때, 거부하는 고향은우리들의 피부를 추위타듯 움츠리게 할 것이다.

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팬스런 걱정으로, 때로는 고향으로 가는 마음을 접게 된다.

사진의 색깔이 바래듯 그렇게 기억 속의 얼굴까지 빛바랜 것으로 찌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나이 탓이려니하면서도) 실향민들이 두려워하는 한가지 슬픔이다. 아무래도 고향은 잃어봐야 안다.

떠나면 산천은 더이상 고향으로 머물러주지 않고 타향이 된다 고향은 단지 떠난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 간직될 뿐이다.

언제 돌아가 보아도 확인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대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우리들의 간절한 욕심일 뿐, 고향은 이에 순종하지 않는다.

떠나기 전 코에 묻었던 고향 냄새, 갈은 눈에 그려지는 조각풍경, 추억속에 선명한 골목과 동네 그리고 이웃……. 거기서 또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에게서, 그 나마 정을 되찾을 수 있어야 그리움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심지어 오랜 문화유산마저도 예대로 아늑한 분위기에 잠겨 있지 않다면, 아무 것도 가슴에 담을 것을 못 찾게 되고 만다.

이때의 그 허전함을 뉘 알리.

그래서 귀향을 주저하고 차라리 향수만으로 망향을 즐기는 어쭙잖음도 없지 않다.

고향이, 떠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그처럼 오래 직행했던 망향이 스러져 버리고 바람결까지 쓸쓸해지는 것을.

간절한 그리움은 이렇게 때때로 배반당한다. 「고향에 돌아와도 고향은 아니더라」이 그리던 노래도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이 무늬져 있는 들판과 동무들과 나눈 얘기가 흩어진 논두렁길. 나성했던 사람들의 그림자 지워진 다리목, 굴렁쇠를 굴렸던 신작로와 고개돌린 미류나무들….

표정이 없는 숲. 나무나 고발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실망이라는 낱말을 재빨리 떠올려 거부당한 가슴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 아니랴.

와닿는 침묵, 침묵에도 빛과 소리는 있다.

어린 시절이 무늬져 있는 들판과, 동물들과 나눈 얘기가 흩어진 논두렁길, 다정했던 사람들의 그림자 지워진 다리목, 굴렁쇠를 굴렸던 신작로와 고개돌린 미류나무들.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 회부연 청색의 산줄기.

이런 모든 것들의 침묵만에서 갑자기 외로워질 것을 두려워한다. 그 때사 이 외로움을 왜 그다지도 그리워했던가 하고 스스로 한마디 타이르는 말을 찾게 된다면……. 그래서, 그리움은 산처럼 가슴 쓰린 애틋함이 아니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일은 아픔인 이상 가장 착한 마음을 지니게 한다. 세상모르고 지냈던 철없던 일, 신이 났던 일, 아렴던 일, 흐뭇했던일 일 심지어는 고까왔던 일까지도, 여러 색이 합치면 한가지 색이 되듯이 모두 엮혀 즐거운 추억거리가 된다.

잡히지 않고 맴도는 이 즐거움에서,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체념 퀴처럼, 고향 언저리를 맴도는 다람쥐 마음이 된다.

전기가 나갔을 때 가발전을 찾듯이 바쁘고 어렵운 삶의 고비를 넘기면, 스며드는 향생각으로 생활의 틈바구니를 메운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려고 회억에 발동을 건다.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환상의 영상으로, 가능한 모든 회억의 조각을 붙잡아 연결시킨다. 슬픈 일은 일찍접어놓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슬로비디오처럼 늘돌린다. 이런 망향에서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것이 위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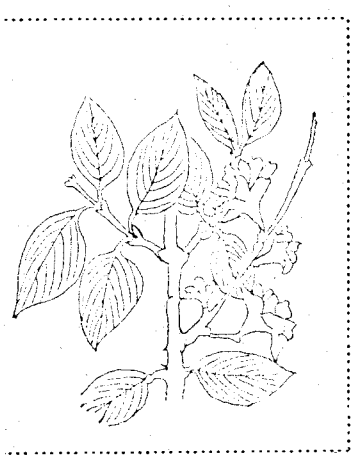
열심히 일하는 꿀벌에게는 습관할 틈이없다고 한다. 이 말이어떤 뜻으로 쓰이든간에 고향을 못가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생각하면 늘 푸른 솔잎의 적송들이 몸을 일으켜 마중하고 그 사이를 흐르는 여울물이 합창을 한다. 그러나 그뿐 표정이 반가운 눈동자들이 빠진 채여서 언제나 겉돌다 올 뿐이다.

하지만 열마 납지않은 어린카락을 빗겨올릴 때엔, 우리는 일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겨대고 싶어진다.

連載 栽培教室

新規會員을 爲하여

무나유수산 (山茱萸)



1、性狀

庭園에 심어서 봄의 先驅者로 觀賞할수 있는 落葉이 되는 灌木이다。나무의 높이는 3m정도 크며 잎은 어겨(對生)붙고 달걀 또는 둥근꼴로서 입가에는 톱니가 없으며 잎끝이 날카롭게 생겼다。잎 뒤의 어깨 맥에는 갈색의 잔털이 密生되어 있다。

꽃은 3~4월 잎이 나오기 전에 결과지끝에 繖形花序의 노랑꽃이 핀다。10월경에 둥근 꼴의 漿質의 붉은 核果가 많이 익는다。

2、栽培法

1、栽培 適地

비교적 耐寒性이 강한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南部地方의 따뜻하고 햇볕이 잘 쪼이는 곳이 잘되며 특히 이른 봄에 꽃이피어 授粉作用을 하기때문에 西北風이 막히傾斜盆地로서 寒波가 없는 곳이 좋을것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꽃은 많이 피지만 落花되고 結實이 되지않는다。참고로 말하자면 속담에 『산수유는 동리 집주변에 심어 煙氣를 풍기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그 이유는 일반 果樹중에서도 이른 봄에 꽃이 피면 霜害를 입어 落花하게 되니이런 경우에는 새벽에 重油나 나무를 태워 연기를 풍기면 空中의 공기가 교란하여 霜害를 막을 수 있다。

2、種子의 處理

山茱萸 種子는 단단해서 發芽가 늦으므로 다음과 같이 씨뿌리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擦傷法·種子껍질이 단단해서 發芽가 늦으므로 약10배의 굵은 모래와 섞어서 절구에 씨르면 껍질이 얇아져서 水分을 잘 빨아들여 發芽가 빠르다。

나、搗精法·처리복적은 擦傷法과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양의 種子라면 보리방아 찧는 정미기에 넣어 몇번이고 搗精하게 되면 단단한 껍질이 얇아진다。이때에 주의할 것은 核의 殼質이 얇아져서 손으로 만지면 말랑거리는 감이 있으면 처리하지 않고 모래와 섞어서 흙 속에 저장하였다가 봄에 처리하여 뿌릴 것이다。

보통 苗圃에서 2年生 苗를 옮겨 심는데 1年生 苗도 生育이 좋고 건실한 것은 옮겨 심을 수 있다。

2年生 苗는 키가 120~150cm정도 된다。심는 시기는 봄과 가을에 심으나 어느때 심어도 活着이 잘 된다。심는 장소는 2~3주일 앞서 미리 깊이 45cm, 넓이 45cm, 파서진 밭 45cm 정도로 파서진 흙과 잘 썩은 堆肥나 약간의 過石을 섞어서 밑에다 넣고 가볍게발로 밟고 그 위에 흙을 쌓아 두었다가 심을때 밑거름이 닿지않을 정도로 파서 苗木의 뿌리를 잘 펴서심는다。이상과 같이 심게 되면 처음에는 노력이 들지만 심은 후 生育이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심는 거리는 360cm 간격으로 심는것이 좋다。

(3번으로 계속)

○成分：果肉에 Iridoid配糖體를 含有한다。

○効用：強壯藥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온 곳이 고향이라면, 송천(松川)뿐 아니고 사리원, 겹이포, 몰금포도 자랄 때 마음을 심은 곳이니 모두 고향이라.

뉘에게나 고향은, 권력이나 돈으로도 어쩔 수 없는 사랑과 위안을 베풀어준다。이것들은 어떤 구속도 벗어나는 힘을 지녔다。

산이 산을 업고 또 둬산이 산을 업어, 진초록 산, 청푸른 산, 하늘색 산들이 차례로 겹겹이 아득한 산등을 이어 포개다가, 마침내 고운 닥이 불빛이 되어 겹겹이 둘러싸인 산골 마을을 감싸주는 풍치.

고향을 그리는 나이가 되어 겹도록 이에 매달릴지라도, 싫증을 몰려 활활 그리움을 다음의 등피를 정성들여 고이 닦아볼 일이 아니라 싶다。

겨울날 마을을 알리는 어느 집 불빛。이런 호롱불의 기름이 떨어져 갈 때,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을 아껴본 사람이라면 심지를 올리지 않고 그대신 등피를 닦는다。

고향을 그리는 나이에 이르면 불빛보다야 밝힘이 없어도 고향이 마음을 밝히는 일이 왜 더 바람직하지 않으리。

제왕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괴면 남편일 뿐이듯, 체제도 무엇도 인정의 빛에서는 어둠을 벗는 날이 있다。우리는 지금 하늘만 쳐다보기 때문이다。(이글은 2000년 정화지에서 발췌한 것임)

〈유경환·시인〉